

돌봄의 정치

무엇을 돌볼 것인가?

권범철(서교인문사회연구소)

돌봄을 중심에 둔다는 것

- 돌봄에 대한 관심이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전례없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돌봄을 중심에 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돌봄을, 어떤 사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



돌봄을 중심에 둔다는 것

- 2024년 9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작
- 이용 대상: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신부 등”
- 이 돌봄 ‘서비스’는 우리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이때 돌봄은 노동 중심 사회를, 그래서 자본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신청접수

필리핀 출신으로 영어유창하고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서울시민(2024.7.17. 주민등록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만12세(2011.7.18.이후 출생) 이하 자녀를 두었거나 출산예정인 가정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자녀연령(어릴수록) 및 이용기간(일수) 등 고려하여 최종 선정 예정

신청기간 2024. 7. 17.(수) 09:00 ~ 2024. 8. 6.(화) 18:00 (3주간)
* 이용가능일: 월~금, 이용가능시간: 08:00~20:00

이용기간 2024. 9월초 ~ 2025. 2월말(6개월)

서비스유형 시간제(4, 6시간) · 종일제(8시간) 중 선택 * 통근행만 가능

서비스내용 자녀돌봄 및 그와 관련된 가사활동
* 동거가족 구성원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서비스

서비스이용요금 시간당 최저임금(2024년 9,860원)+법정 4대사회보험료 등 포함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홈스타생활(대리주부), ㈜유브리스(돌봄플러스)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대리주부 앱 다운로드 돌봄플러스 앱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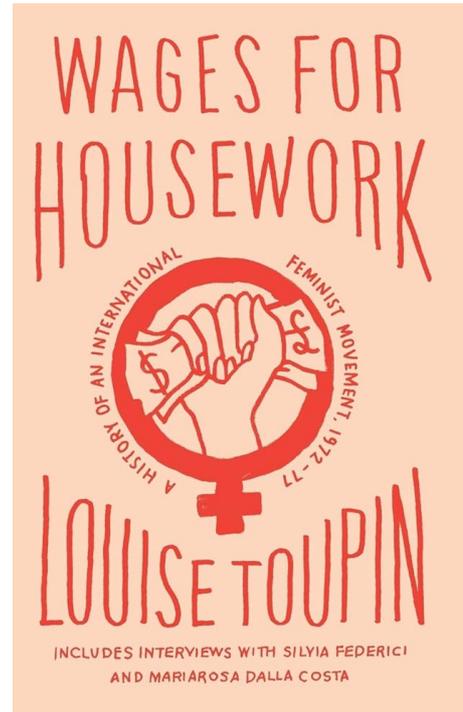
문의전화 ㈜홈스타생활 02)6204-4814, ㈜유브리스 02)2135-2299 * 상담시간: 09:00-18:00

돌봄을 중심에 둔다는 것

- 이 사업은 우리의 취약해진 돌봄 능력 혹은 돌봄노동 거부를 외국인 가사관리사 수입이라는 인종화된 수탈 체제로 해결하려 한다. 돌봄은 현재 혹은 미래의 노동자를 (재)생산하기 위해 계속되어야만 하기 때문. 이렇듯 이 사업은 돌봄을 자본의 기둥으로 계속 유지하려 한다.
- 이러한 돌봄의 기능은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것. 이 기능은 현재와 같은 노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 돌봄의 가치를 계산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 일의 사회적 기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 집 안에서 여성이 무상으로 하던 일을, (이제 그 여성이 ‘직장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국의 다른 (그러나 여전히) 여성이 임금을 받고 수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변화란 무엇일까?

돌봄을 문제화하기

- 자본주의는 가치절하된 재생산/돌봄노동에 의존하는, 다시 말해 재생산 노동의 가치 절하를 통한 엄청난 비용 절감에 기대는 시스템
- 따라서 “낮은 비용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권리 없는 노동자 계급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만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언제나 본래 성취주의적이며 인종주의적으로 구조화된 시스템이었던 이유다.”(실비아 페데리치)
- 따라서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 돌봄에 대한 인정 같은 건 일어날 수 없다.



돌봄을 문제화하기

- 돌봄이 중심이 된 사회란 돌봄 ‘서비스’ 수요를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돌봄 공백을 잘 메우는 사회가 아니다. 돌봄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미’ 정해진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 돌봄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 그 일은 손쉽게 시장에서 해결 가능한 혹은 국가가 알아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며 이 과정에서 돌봄은 그저 현재의 질서를 재생산하는 데 머무르게 된다.
- 따라서 돌봄에 대한 구성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는 돌봄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구성적 기제로 이해하는 것이다. 현 사회를 지탱하는 돌봄이라는 기둥을 빼내어 다른 사회의 주춧돌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돌봄을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삶형태의 토대로 만들 수 있을까?

돌봄을 문제화하기

- 낸시 프레이저, 가족임금을 대체할 새로운 젠더 질서 검토
- 기존 방안: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 '동등한 돌봄 제공자 모델'
- 프레이저,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 제시(남성을 여성처럼 만드는 기획)
- 프레이저는 이 모델에 입각한 복지국가에서는 모든 일자리가 돌봄제공자인 동시에 노동자인 사람을 기준으로 고안될 것이라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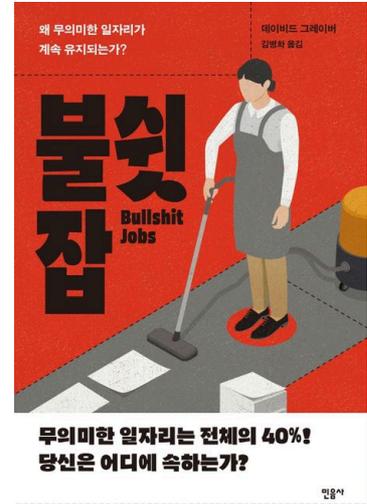


돌봄을 문제화하기

- 그러나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 역시 여전히 돌봄을 필요를 채우는 문제로 한정
- 현재 돌봄의 사회적 역할 — 자본의 기동 — 자체를 문제화하기보다 그 역할 내에서의 '정의'에 머무른다.
- 현재의 질서 안에서 수행되는 생산 노동이 문제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재생산 노동이 그 문제적인 노동을 계속해서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재)생산 노동의 평등한 접근/분배 이전에 노동 자체를 문제화하는 것 아닐까?
- 돌봄을 보편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돌봄의 불평등한 분배만이 아니라 돌봄의 사회적 기능 자체를 문제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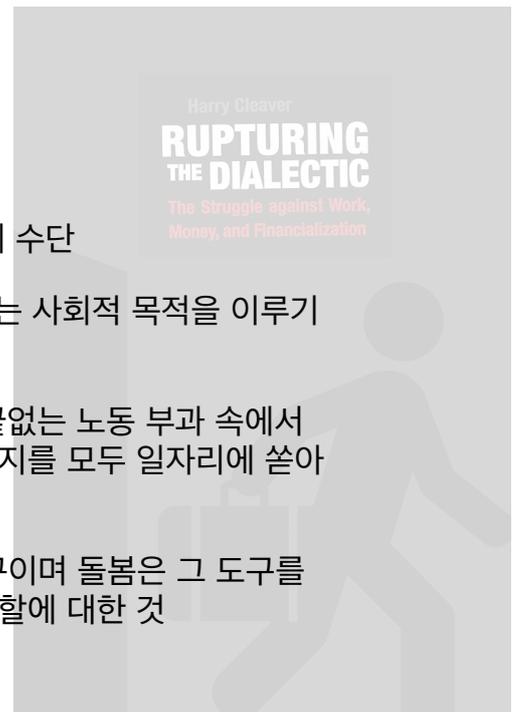
자기가치화로서의 돌봄

- 보편적 돌봄을 말하기 전에 돌봄과 돌봄이 지탱하는 노동을 문제화해야 한다.
- “우리 사회는 일에 중독되어 있다.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다면 그건 일자리는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다.”(데이비드 그레이버)
- 일은 왜 문제인가?
- 노동은 많은 경우 사회적으로 무의미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게 만들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삶의 터전 자체를 망가뜨리는데 기여



자기가치화로서의 돌봄

- 해리 클리버, 노동은 (경제 활동이라기보다) 정치적 통제 수단
- “이윤 창출은 우리에게 일을 부과하여 우리를 통제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본주의적 수단에 불과하다.”(클리버)
- 노동의 가치란 이윤 창출만이 아니며, 더 중요한 것은 끝없는 노동 부과 속에서 우리를 계획 가능한 존재로, 열심히 일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일자리에 쏟아 붓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
- 따라서 노동은 경제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도구이며 돌봄은 그 도구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돌봄의 문제화란 바로 이러한 역할에 대한 것



자기가치화로서의 돌봄

- 따라서 돌봄이 노동을 지탱하는 관계를 끊는 것이 중요
- 돌봄은 자본을 위해 무상으로/저렴하게 노동력을 재생산하지만 어쨌든 꼭 필요한 일
- 따라서 돌봄 자체를 거부하기 어렵지만 돌봄과 자본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은 가능할 것
- 이것은 예전처럼 돌봄을 이어가는 것일 수도 그냥 그만두는 것일 수도 없다. 돌봄에 대한 구성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다. 돌봄을 계속 이어가되 다르게 수행하는 것, 이는 다른 삶을 위한 것이면서 그 자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른 삶의 양식을, 결국 다른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즉 돌봄을 자본의 가치화가 아니라 자기가치화의 과정으로 만드는 것
- 이때 돌봄은 서비스가 아니라 어떤 삶을 원하는가라는 물음의 답을 찾는 과정이 된다.

자기가치화로서의 돌봄

- 이는 오늘날 특히 중요
- 노동을 통해 부여되며 또한 우리가 지탱하는 이 삶의 양식이 우리의 터전을 체계적으로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
- 따라서 자기가치화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인류에게 생존의 문제
- “인간 사회를 재구성하는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논의를 하다 보면, 결국 가치의 문제가 전면으로 나오게 된다. 인류세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궁극적인 질문은 어떤 기술, 정책, 제도를 채택할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은가다.”(토머스, 윌리엄스, & 잘라시에비치, <인류세 책>, p. 271)

인류세 책

행성적 위기의 다면적 시선

*The Anthropocene: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줄리아 에드니 토머스 Julia Edeney Thom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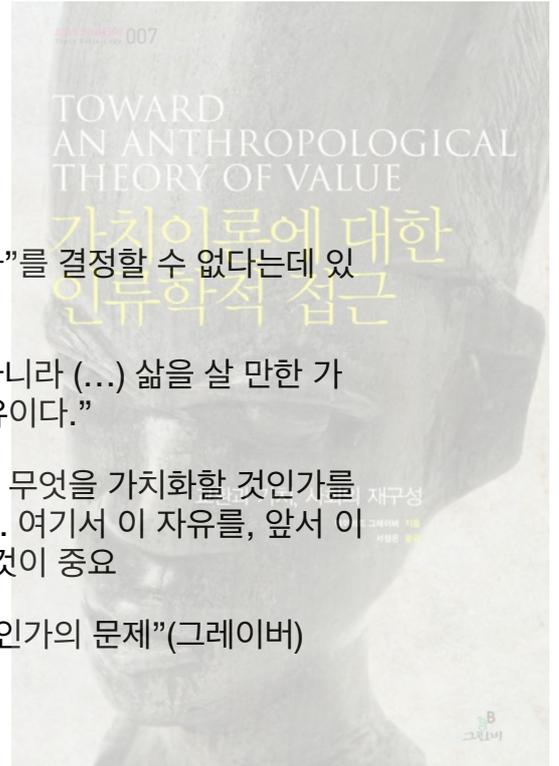
마크 윌리엄스 Mark Williams

얀 잘라시에비치 Jan Zalasiewicz

박범순·김용진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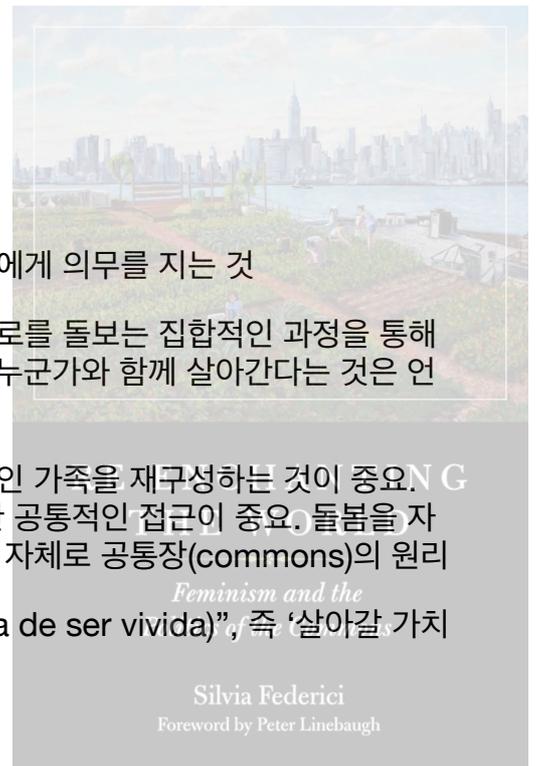
자기가치화로서의 돌봄

- 문제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를 결정할 수 없다는데 있다. 그레이버는 이를 자유의 문제로 연결한다.
- “궁극적인 자유는 가치를 창조하거나 축적할 자유가 아니라 (...)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이다.”
- 돌봄은 이러한 자유를 구축하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무엇을 가치화할 것인가를 결정할 뿐 아니라 그 결정을 실현해나가는 과정 말이다. 여기서 이 자유를, 앞서 이야기한 책임감, 즉 상대에 대한 의무와 함께 사고하는 것이 중요
- “자유란 사실 어떤 종류의 의무를 누구에게 지고 살 것인가의 문제”(그레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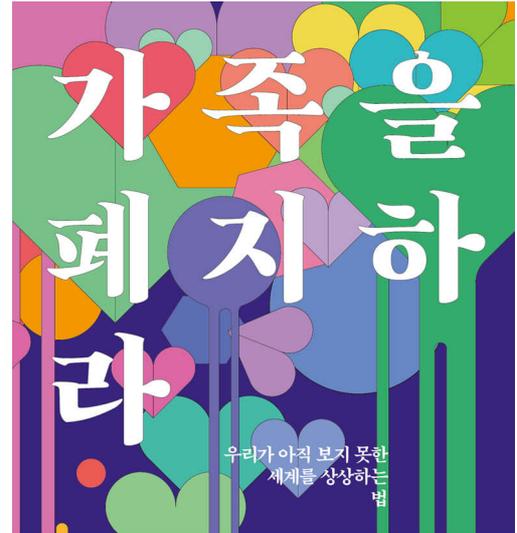
자기가치화로서의 돌봄

- 자유란, 스스로 가치화할 수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의무를 지는 것
- 따라서 자기가치화로서의 자유는 서로 의무를 지는, 즉 서로를 돌보는 집합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이 의무는 이중적이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유대와 속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기 때문
- 가족은 이 의무의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공간. 배타적인 가족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 국가와 시장을 통한 돌봄도 문제적. 이 때문에 돌봄에 대한 공통적인 접근이 중요. 돌봄을 자기가치화를 통한 다른 삶의 구성으로 이해할 때 돌봄은 그 자체로 공통장(common)의 원리
- 이때 공통장이란 “비다 디그나 데 쎬르 비비다(vida digna de ser vivida)”, 즉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삶’에 대한 헌신



자기가치화로서의 돌봄

- 중요한 것은 가족을 공통하는 (commoning) 것, 혹은 혈연관계를 완전히 내려놓은 새로운 유대 관계로서의 “근족”(kith)을 만드는 것
- 인류세 시대의 우리에게 결정적인 질문이 “어떤 종류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은가”라면 새로운 유대로서의 근족의 구성 혹은 가족의 공통화는 스스로 결정한 사회를 직접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답이 되는 실천



“가족과 관련된 모든 사회 질서를 이해하는 데 적절한 입문서”
정희진

“우리가 ‘가족’이란 단어에서 애초에 버렸던 상호 돌봄, 안전, 소속감의 잠재력을 좀 더 정의롭게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많은 독자가 이 논쟁적인 책과 마주하기를 바란다.” 조문영

직설적인 제안, 대담한 상상력 —
돌봄과 해방을 위한 선언

돌봄 공통장의 물질적 조건

- 지금까지 이야기한 자기가치화하는 돌봄 관계로서의 공통장은 임금노동을 거부하고 돌봄 관계로 스스로를 재생산하고자 하는 관계. 그러므로 노동의 거부는 그저 거부만이 아니며 새로운 것의 구성이기도 하다.
- 그것은 기존의 (자본의 가치화를 위한) 문제적인 노동을 거부하고 (자기가치화를 위한) 노동(공통화)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제도를 구성하는 것
- 우리의 논의에서 노동 거부와 돌봄 공통장의 구성은 늘 한 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본에게 판매할 노동력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그래서 임금이 없는 공통장의 생계는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 노동을 거부한 이후 우리의 생계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우리는 공통장으로 자급할 수 있을까?

돌봄 공통장의 물질적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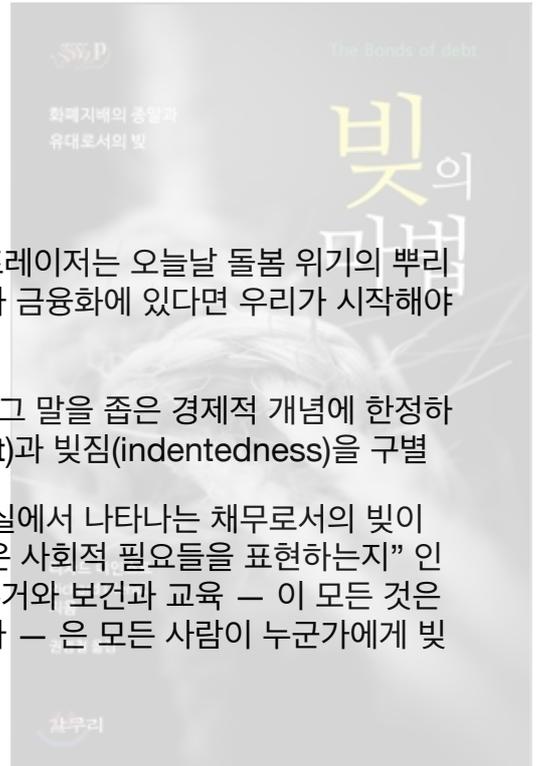
- 이러한 현실적인 질문은 노동 거부에 대한 상상을 가로막는다.
- 하지만 생태위기에 대한 우리의 구조적인 연루에서 벗어나려면 노동의 문제화는 필수적
-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돌봄을 사회에 중심에 두는 방법이 아니라 노동 거부를 중심에 두는 방법인지도 모른다. 노동 거부를 중심에 두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돌봄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돌봄은 이럴 때만이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일이 된다.

돌봄 공통장의 물질적 조건

- 그러나 노동 거부는 쉽지 않으며 어떤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에서 발현할 수 있는 기운
- 우리는 일자리가 아닌 다른 기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거부의 용기를 낼 수 있다. 주체성은 집합적이다(내가 용기를 낸다기 보다 그런 기운을 받게 된다).
- 노동 거부의 용기를 내기 위해 기댈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그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사례: 1968년 당시 미국의 일자리-소득 환경, 1980년대 한국
- 그러나 지금의 대학은 아주 다른 공간

돌봄 공통장의 물질적 조건

- 다른 기운(정동)이 순환하는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프레이저는 오늘날 돌봄 위기의 뿌리가 금융화된 자본주의에 있다고 말한다. 이 위기의 뿌리가 금융화에 있다면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지점도 그곳이 아닐까?
- 빛은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도구임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좁은 경제적 개념에 한정하지 않는다. 빛은 상호의존을 표현한다. 디인스트, 빚(debt)과 빚짐(indentedness)을 구별
- 그는 빚짐을 “기본적인 인간의 조건”으로 이해하면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채무로서의 빛이 어떻게 “정치적 요구들로 재구성될 수 있는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필요들을 표현하는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이렇게 덧붙인다. “분명히 주거와 보건과 교육 — 이 모든 것은 개인이 혼자서 지불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지출을 요구한다 — 은 모든 사람이 누군가에게 빚지고 있는 의무들로 이해되어야 한다.”



돌봄 공통장의 물질적 조건

- 주거와 보건과 교육은 우리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빛이 아니면 충족될 수 없다. 우리의 삶이 불안한 이유다. 이는 거꾸로 우리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장을 구성하는 열쇠도 여기에 있음을 암시
- 채무로서의 빛이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필요들을 표현”한다면 그 각자의 빚들을 어떻게 정치적 요구로 묶어낼 수 있을까? 주거와 보건과 교육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군가에게 빚지고 있는 의무”로, 즉 서로에게 지고 있는 책임으로 이해할 필요
- 이를 통해 개인적인 빚들을 사회적인 책임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빚짐과 공통재 (common good) 간의 적절한 역사적 접속”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 각자의 의무(채무)를 공통의 의무(빚짐)로 바꿀 수 있다.

나가며

- 이렇게 뒤집어진 빛이 자기가치화로서의 돌봄 공통장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인 주거와 보건과 교육에 접근하기 위해 빛을 지고, 그렇게 진 빛이 노동을 강제하며, 그에 따라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기며 지구를 파괴하는 자본주의 체계에 봉사한다면, 이 긴 문제적인 연쇄의 출발점을 뒤집는 건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이는 적어도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어느 정도 되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노동 거부와 돌봄 공통장을 위한 조건도 마련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즉 “어떤 종류의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조금은 얻을 수 있다.

나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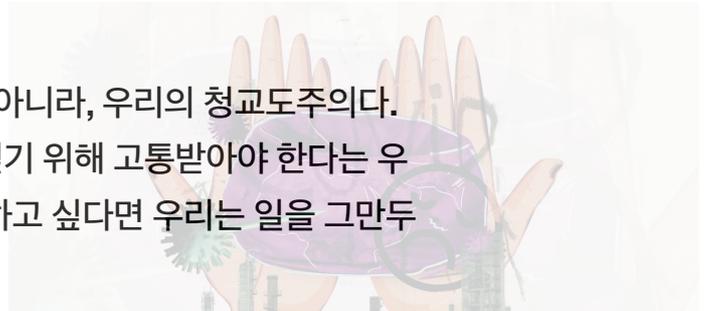
- 인류세 시대의 우리는 돌봄을 강요받는다.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을, 생명뿐 아니라 비생명을, 우리 주변과 거리, 마을, 도시, 지구를 돌보아야 한다고 한다. 이는 대체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억누르고 절제하는 삶을 요구한다. 먹지 말아야 할 것, 타지 말아야 할 것,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점점 늘어난다. 이러한 절제는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와중에도 우리가 여전히 자본주의 체계 또한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어떤 아이러니를 낳는다.
-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절제하면서 — 그것에 성공한다면 — 사회적으로는 돌봄과 자연을 “폭식”하는 “걸신들린 짐승”을 양육한다. 우리의 일할 수 있는 힘과 무엇보다 일할 의지를 재생산하면서 그에 따라 열심히 일하면서 말이다. 우리가 일할 힘과 의지가 아니라 공통할 힘과 의지를 재생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David Graeber: 'To save the world, we're going to have to stop working'

Writing as part of Jarvis Cocker's Big Issue takeover before his untimely death earlier this month, David Graeber explains his confusion about why we'd destroy the planet if we don't have to

DAVID GRAEBER | 8 Sep 2020

“세계를 파괴하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청교도주의다.
우리가 그러한 즐거움을 누릴 자격을 얻기 위해 고통받아야 한다는 우리의 느낌이 문제다. 우리가 세계를 구하고 싶다면 우리는 일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David Graeber, “To save the world, we’re going to have to stop working,” *BIG ISSUE*, 2020.9.8.